

# 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이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와 익명성의 조절효과 검증

## The Effect of Tension and Low Self-Control on Cyber Deviation: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et Addiction and Moderating Effect of Anonymity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남수정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Sujung Nam

###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 V. 결론 및 시사점 |
| III. 연구설계         | 참고문헌        |

### <Abstract>

Tension and self-control are explanatory factors in adolescent delinquency, and internet addiction and anonymity are regarded as factors underlying cyber deviatio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se factors and cyber deviation. Participants were 485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he Jeonbuk region. The results showed that tension and self-control were predictors of cyber deviation and that internet addiction was a mediating variable for both the predictors. Anonymity was found to have a moderating role, but only in respect of the tension-cyber deviation pathway. These findings suggested a number of implications. Firstly, the educational programs on cyber deviation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deviation prevention programs. Secondly, measures to prevent internet addiction are needed for the effective prevention of cyber deviation. Lastly, the finding of a relationship between anonymity and cyber deviation indicates the need to adopt a long-term perspective drawing on values education techniques to develop a code of cyber space ethics for "netizens"

**주제어(Key Words)** : 사이버일탈(cyber deviation),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 익명성(anonymity),  
긴장(tension), 낮은 자기 통제력(low self-control)

## I. 문제제기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생활의 장이 되고 있다. 인터넷 보급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정보와 지식 이외에도 게임과 같은 놀이,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등을 가능케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확산은 인터넷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칠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그 위험성 수위는 각종 사이버 범죄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실정에 이르렀다(오영희, 2007).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사이버일탈에 대한 유형과 설명요인 및 통제요인 등을 밝히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김재휘, 김지호, 2002; 이성식, 2004; 천정웅, 2000;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a). 그 결과 선행연구 대부분에서는 현실세계의 일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사이버 일탈에도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김지환, 2005; 김혜원, 2001; 양돈규, 2003,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b). 청소년의 사이버 일탈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존의 비행이론들 중 가장 광범하고 있는 이론은 긴장이론과 일반이론이다. Agnew(1992)의 긴장이론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긴장 및 그로 인해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을 비행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긴장이론은 다른 이론들의 논의를 포함하는 통합이론으로써 각광받고 있다. 또한 일반이론은 비행 및 범죄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이론 중 하나이며(Cohn & Farrington, 1999), 일반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설명력은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Pratt & Cullen, 2000).

그러나 사이버일탈은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일탈에 이르는 과정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일탈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러한 특성 중 하나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과도한 몰입 또는 중독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인터넷 중독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김유정, 2002; 박영호, 김미경, 2002; 안석, 2000; 이해경, 2002)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은 공격성이 높고, 더 많은 문제행동을 노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수진(2008)의 연구에 의하면 문제행동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문제행동 성향으로 인해 현실에서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회피하고자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에 몰두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에 쉽게 빠지며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개인의 문제행동성향이 더욱 강화되는 악순환적인 관계가 발생된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장미경 외, 2004). 결

국 인터넷 중독은 실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이버공간의 독특한 심리적 경험이고 이러한 심리적 경험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컴퓨터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더욱 연장시키며, 사이버일탈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과 더불어 사이버공간의 또 다른 특징인 익명성 또한 사이버일탈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성식(2005)은 사이버공간에서 청소년의 언어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익명성에 주목하였다. 익명성은 기존의 일탈에 영향을 주었던 가정환경요인이나 자기통제력 등과 같은 요인과 더불어 그러한 요인들의 필요충분조건으로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최희재, 이준기와 김정원(2009)의 연구에서도 온라인상에서의 익명성이 자기통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결국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성이 보장될 경우 청소년의 사이버일탈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청소년이 사이버 공간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 공격성, 폭력성 및 성적 충동성을 지나치게 자극받고 지나친 몰입으로 인해 사회적 활동의 제한 및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접촉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면서 고립감과 우울감에 빠져들게 된다(전동일, 위수경, 최종복, 오봉욱,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청소년의 일탈을 설명했던 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 이외에 사이버공간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중독과 익명성을 사이버일탈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청소년의 사이버일탈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이버 일탈에 대한 이해의 바탕이 되고 사이버일탈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 1. 긴장이론

전통적인 긴장이론(Cohen, 1965; Turner, 1982)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문화적 목표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합법적 기회의 차이가 사회의 구조적 긴장을 유발시키고 사람들은 범죄와 일탈을 통하여 이러한 긴장을 해결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목표달성에 대한 욕구가 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작을 때 비행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Agnew(1985)는 오히려 욕구와 기대가 낮을 때 비행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전통긴장이론에서 강조되는 구조적 긴장 이외에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경험하는 일반적 긴장이 비행의 원인 된

다는 일반긴장이론을 주장하였다.

긴장을 유발하는 주요 세 요인은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는 목표달성 실패,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는 자극의 소멸, 그리고 부정적 자극의 존재가 제시되고 있다(Agnew, 1992).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는 목표달성의 실패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기대될 때(열망과 기대의 격차), 원하는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지 못했을 때(기대와 성취의 격차), 또는 그 결과가 긍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공정한 결과와 실제 결과의 격차)를 의미한다. 이 때 나타나는 긴장은 전통적인 긴장이론에서 주로 다루었던 긴장의 유형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다(Piquero & Sealock, 2004).

일반긴장이론에서는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긴장을 비행의 원인으로 고려했으며 그러한 점에서 부모와의 갈등, 학업성적 부진, 이성친구와의 헤어짐, 친구와의 다툼처럼 가정, 학교, 주위사람들 관계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상긴장을 비행의 원인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일반긴장이론의 주장은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 지지를 받았다. 즉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 학교부적응, 친구와의 갈등 등 여러 부정적 사건들의 긴장이 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경험연구들에서 밝혀져왔다(Agnew & Bersina, 1997; Agnew & White, 1992; Brezina, 1996; Paternoster & Mazerolle, 1994). 이와 같이 일반긴장이론이 기존의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이 청소년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사이버 공간은 가상공간이라기 보다는 현실의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긴장이론을 사이버일탈에 적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긴장과 사이버일탈간의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1〉 긴장은 사이버일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소년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인해 청소년들은 인터넷에 몰입하거나 몰입이 지나칠 경우 인터넷 중독이 되어 비행을 하게 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부모-자녀상호작용과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는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고(김경신, 김진희, 2003; 김정화, 2002; 남현주, 2003; 서화진, 2004) 부모와의 갈등정도가 높다고 지각하는 경우와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경신,

김진희, 2003; 김교현, 2001).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긴장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2〉 긴장은 인터넷 중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낮은 자기통제력(low self-control)**

Gottfredson과 Hirschi(1990)가 “A General Theory of Crime”을 발표한 이래 일반이론은 지난 16년간 영미권을 중심으로 많은 경험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일반이론에서는 대부분의 비행이 순간만족과 욕구에 따라 충동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비행청소년과 정상인을 구분할 수 있는 내적성향도 순간만족과 충동성을 통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바로 자기통제력이라고 하였다. 통제는 행위자의 내부와 외부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반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내적인 통제인 자기 통제력으로 이것은 순간의 유혹에 취약한 정도를 나타내며 자신의 행동이 장기적으로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하는 정도의 차이를 말한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무신경하고 육체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선호하고 근시안적이며 말보다 행동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Gottfredson & Hirschi, 1990).

이 이론이 일반이론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 이론에서 강조하는 자기통제력이라는 내적 성향 요소가 청소년 비행 뿐 아니라 사소한 문제행동, 그리고 성인들의 범죄 등 모든 유형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고, 또한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일반이론은 그동안 연구에서 사소한 문제행동(Arnklev et al., 1993; Gibbs & Giever, 1995), 청소년 비행(Polakowski, 1994; Wood et al., 1993), 성인범죄(Burton et al., 1999; Evans et al., 1997; Grasmick et al., 1993)에 잘 적용된다는 결과가 있어 왔고 미국 이외에 유럽국가(Vazsonyi et al., 2001)와 일본(Vazsonyi et al., 2004), 그리고 국내(김두섭, 민수홍, 1996)에서도 지지를 받아왔다.

일반이론에서는 자기통제력과 관련된 성향은 어릴 때 형성된다고 간주하고 있다. 즉 어릴 때 부모의 양육방법에 의해 결정되는데 부모로부터 감독이 소홀하거나 애정결핍속에, 무계획적 생활습관이 방치되고 잘못된 행동에 적절한 처벌과 제재가 없이 자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내적 통제력이 낮아 문제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처럼 어릴 때 형성된 자기통제력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고도 지속적인 성향이 되기 때문에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문제행동을 보이고 청소년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성인이 되어서도 범

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하고 있다(김두섭, 민수홍, 1996; Arnklev et al., 1993; Gibbs & Giever, 1995; Vazsonyi et al., 2001).

일반이론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의 유일한 설명 원인이 된다고 보면서 기존의 이론들에서 강조되어 왔던 사회유대의 약화,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같은 요인들은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비행이나 사회유대의 약화,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모두 낮은 자기통제력이라는 공통된 원인에서 비롯되는 결과이며 사회유대나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과의 관계는 허위관계에 있고, 결국 비행의 궁극적인 원인은 오직 낮은 자기통제력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일반이론을 검증한 선행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이 비행이나 범죄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을 지지하고 있으며(Gibbs & Giever, 1995; Grasmick et al., 1993; Polakowski, 1994; Wood et al., 1993), 최근의 메타분석(Pratt & Cullen, 2000)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자기통제력이 범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설명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실제일탈에 영향을 주는 낮은 자기통제력은 사이버일탈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실제 경험적인 연구에서도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이버일탈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부정민, 조유진, 2010; 신준섭, 이충환, 2010; 이호열, 김준희, 2008)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이버일탈의 관계에 대한 다음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3〉 낮은 자기통제력은 사이버일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자기통제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인터넷 중독적 사용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Hur, 2006; Kim, Murry, & Brody, 2001; Young, 1996a). 국내연구에서도 인터넷 중독적 사용에 대해서 자기통제력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종원, 조옥귀, 2002; 배진한, 1995; 송원영, 1998; 이선경, 2001) 이 때문에 자기통제력 향상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선행연구(김종원, 조옥귀, 2002; 정태근, 2005)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낮은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중독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4〉 낮은 자기통제력은 인터넷 중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학자는 Goldberg(1996)이다. 그는 DSM-IV의 물질남용장애(substance Abuse Disorder)의 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최초로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라는 용어와 개념적 진단 준거를 만들었다.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Young(1996a)이 미국심리학회(APA)에서 인터넷 중독 척도를 발표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Young(1996a)은 DSM-IV의 병적 도박의 진단 기준을 원용하여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와 척도를 제작하였다. Young(1996b)은 인터넷 중독이 알코올 중독이나 심리적 도박중독과 같은 실질적인 것이라고 하며, 다른 중독과 같이 통제상실, 금단증상, 사회적 고립감, 결혼붕괴, 학업실패, 업무능력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Funk, Bushman과 Germann(2000)은 인터넷 게임을 장시간 사용할수록 청소년의 품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인터넷 게임의 단기적인 사용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 게임의 장기적인 사용은 게임에 몰입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정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게임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일수록 부정적인 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Anderson과 Dill(2000)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에 반복적으로 노출을 장기간 하였을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 보다 공격적 비행과 그 외의 비행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Colwell과 Payne(2000)은 컴퓨터게임을 한 빈도와 지속시간, 게임의 폭력적인 정도와 공격성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컴퓨터게임을 자주 오랫동안 할수록 그리고 게임이 더 폭력적일수록 응답자들의 공격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결과에서도 인터넷 게임 중 청소년들의 폭력적 게임 이용이 폭력을 모방하여 살인이나 폭력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의 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사회, 교육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이해경, 2000). 이외에도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폭력적 비행과 관련된 연구에서 폭력적 비행은 욕설, 친구의심, 학교폭력, 절도, 갈취, 범죄적 일탈행위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성윤숙, 2004; 주지혁, 조영기, 2007).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일탈간의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5〉 인터넷중독은 사이버일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사이버 일탈

사이버 일탈은 현실의 일탈과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김준호 외(2003)은 사이버 일탈을 비대면성과 익명성, 시공간의 무제한성, 피해의 광대성/광역성, 전문/기술성 등이 주요 특징이라고 밝히고 있다. 천정웅(2000)은 크게 컴퓨터의 매체적 특성과 활용상 특성으로 분류하고 매체적 특성에는 비대면성과 익명성, 리색신드롬과 공통체유대의 결여,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 그리고 빠른 전파성이 있으며 활용상 특성에는 전문적 기술, 놀이공간적 특성, 그리고 이용 동기적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사이버일탈 행동으로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스팸메일 유포,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일탈들이 제시되고 있고 학자들에 따라 사이버 일탈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먼저, 사이버 일탈을 전통일탈과 신종일탈로 구분하는 것으로 여러 방법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류방식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지만 이미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일탈과 사이버 공간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일탈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일례로 사이버성폭력이나 스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사기, 도박 등은 전통일탈에 해당되며, 해킹, 바이러스 유포, 음란사이트 운영 등은 신종일탈에 해당된다. 또한 주리애와 권석만(2001)은 인터넷을 정보제공기능, 의사소통기능, 오락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 각 기능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행동을 분류하였으며, 이종원(2001)은 청소년의 사이버일탈 행동을 인터넷 중독 이외에 크게 가해형과 비가해형 이상 세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김옥순(2000)은 사이버 일탈을 음란, 복제물판매와 사이버 성폭력으로 나타나는 성관련 일탈행위와 해킹, 바이러스 유포, 허위정보의 유포라는 컴퓨터 범죄로 나타나는 사회규범 해체적 일탈행위 그리고 저작권 침해, 아이디 도용, 허위이메일 계정등록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개인권리 침해의 일탈행위로 유형화하였다. 청소년들의 사이버일탈에 관한 연구들(김옥순, 2000; 이종원, 2001; 천정웅, 2000)을 종합해 보면 성관련일탈행위 이외에도 사회규범을 해체시키거나 개인권리 침해와 관련된 사이버 일탈행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 6. 익명성

익명성에 대한 개념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Davenport(2000)는 정체성을 갖는 능력(identifiability)의 반대 개념으로 익명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Wallace(2001)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억제되지 않은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이 익명성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이 가능한 곳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Suler(2003)는 사이버 공간 내 익명성의 효과에 대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도덕적 구속력이 적어져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양성적 탈억제성 효과(benign disinhibition effect)”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정체감이 뚜렷이 드러나는 현실세계에 비해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각종의 “악성적 탈억제성 효과(toxic disinhibition effect)”도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의 상황은 게시판, 채팅 등에서 상대에게 욕설을 하고 인식공격을 하는 등의 일탈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면의 상황에선 가능성이 낮지만 자신의 신체와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익명의 상황에서는 욕설, 비방, 명예훼손 등의 행동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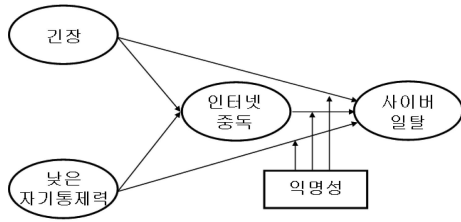
사람들은 남을 의식하는 공적 자아의식이 높을 때 규범적인 행동을 한다. 그런데 익명의 상황에서는 자신의 얼굴은 물론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탈규범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게 될 수 있다. 즉 익명의 상황에서는 소위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공적 자아의식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가 무책임하고 반규범적인 행동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익명성의 효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몰개성화이론(Kiesler, 1984; Zimbardo, 1969)에 따르면 익명의 상황에서는 공적자아의식이 감소되고 아울러 사적 자아의식도 감소하게 됨으로 자신의 내적태도와 감정에 덜 신경 쓰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평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내적인 사회금기와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사회규범의식이 약화되고 자신이 평소 생각해 왔던 내적기준과 달리 자기조절됨이 없이 절제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즉 익명의 상황은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금기와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내적규제와 감정조절도 어렵게 하여 욕구와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방출하게 만들 수 있다(Postmes & Spears, 1998).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의 상황은 자신의 신체와 신분이 노출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각의 위험이 낮기 때문에 공식처벌의 두려움이 작용하지 않게 된다. Tittle(1980)은 사람들의 행동이 처벌의 정도, 특히 얼마나 발각되는지의 확실성의 정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익명의 상황에서는 실명의 경우와 달리 발각과 처벌의 가능성이 낮아 자신의 반규범적 행동을 큰 두려움 없이 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익명성과 사이버일탈간의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6〉 긴장이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은 익명성 인지 정도에 따라 조절된다.

〈가설7〉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정(+)의 영



〈그림 1〉 연구모형

향력은 의명성 인지 정도에 따라 조절된다.

〈가설8〉 낮은 자기 통제력이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은 의명성 인지 정도에 따라 조절된다.

위에서 제시한 〈가설1〉에서부터 〈가설8〉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면 〈그림 1〉과 같다.

### Ⅲ. 연구설계

#### 1. 구성개념들의 측정방법

##### 1) 긴장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긴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Agnew et al., 1992; Mazerolle & Paternoster, 1994) 등을 기초로 하여 부모긴장, 학교긴장, 친구긴장 모두 세 영역으로 측정하였다. 부모긴장은 “나는 부모와 갈등이 심하다”,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시지 못한다”, “나는 우리 가정에 불만이 많다” 등 모두 4문항, 학교 긴장은 “나는 학교생활을 잘하는 편이다”, “나는 요즘 학교 가기가 싫다”, “나는 공부에 흥미가 없다”, “학교 선생님들과 사이가 좋지 못한 편이다” 등 모두 4문항, 친구긴장은 “나는 마음에 맞는 친구가 없다”, “나는 친구들과 잘 다룬다”,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나는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것이 매우 즐겁다” 등 모두 4 문항이며 모두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 2) 낮은 자기통제력

본 연구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Grasmick et al.(1993)이 제시한 충동성, 현재지향성, 위험추구성 등을 모두 반영한 이성식(2005)의 9개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들 문항을 모두 7점 리커트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클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 3) 인터넷 중독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Young(1996a)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두 20개의 문

항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클수록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 4) 사이버일탈

사이버 일탈은 기존의 연구(김재휘, 김지호, 2002; 이호열, 김준희, 2008;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b)에서 측정되었던 문항을 통합하여 총 9문항에 대해 해본적인 있으면 1점, 해본적인 없으면 0점으로 처리하여 합산하였다. 따라서 사이버일탈에 대한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9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일탈의 경험정도가 큰 것으로 간주하였다.

#### 5) 의명성

의명성은 이성식(2005)과 최희재, 이준기와 김정원(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을 본 연구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5가지 항목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중 의명성인식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의명성을 측정한 5개의 문항을 평균을 중심으로 하위 40%이하의 집단을 의명성을 낮게 인식한 집단, 그리고 상위 60%이상의 집단을 의명성을 높게 인식한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집단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2. 표본구성

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0년 5월 11일부터 2010년 5월 25일 까지 전북지역의 중고등학교를 표집하여 각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집하였다. 이중 회수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485부가 본 연구를 위해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빈도(%) / 평균(S.D.)
성별	남자 234(48.1)
	여자 242(49.8)
학년	중학생 232(47.7)
	고등학생 254(52.3)
긴장	2.78(1.00)
낮은 자기통제	3.71(1.09)
일탈점수	3.29(3.17)
의명성	4.06(.76)

### Ⅳ. 연구결과

#### 1. 신뢰성 및 타당성

##### 1)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론변수들 간의 신뢰성 검증은



〈표 2〉 측정항목의 요인분석결과

변인	측정항목	모수 추정치	표준화된 추정치	표준오차	t값	Cronbach's α	AVE	CR
긴장	부모긴장	1.00	.728	-	-	.702	.502	.702
	학교긴장	1.120	.775	.109	10.284***			
	친구긴장	.875	.614	.092	9.470***			
낮은 자기통제력	위험추구성	1.00	.652	-	-	.768	.539	.725
	현재지향성	1.228	.788	.118	10.395***			
	충동성	1.138	.757	.110	10.370***			
인터넷 중독	집착	1.00	.923	-	-	.812	.632	.795
	강박	.812	.642	.098	8.304***			
사이버 일탈	음란물일탈	1.00	.677	-	-	.801	.556	.756
	기술적일탈	1.238	.810	.180	6.898***			
	공격적일탈	1.686	.744	.249	6.767***			

$\chi^2(38) = 161.883, GFI = .983, AGFI = .936, TLI = .921, RMSEA = .062$

Cronbach's α계수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신뢰성 분석결과 〈표 2〉와 같이 Cronbach's α값이 모두 .70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2) 집중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에 대한 확인적 요인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적합도는  $\chi^2(38) = 161.883, GFI = .983, AGFI = .936, TLI = .921, RMSEA = .062$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잠재요인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측정도구가 상관관계를 갖는 정도인 집중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의 크기, 잠재요인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의 크기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모두 .6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잠재요인 신뢰도는 모두 .70이상이며 평균분산추출값은 .50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들 간에는 집중타당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판별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구성개념들 간의 판별타당성은 평균분산추출값(AVE)이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관계수의 제곱 값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될 수 있다. 〈표 3〉에서와 같이 대각선 이하의 각 상관관계수의 제곱값이 AVE 값을 초과하지 않아 구성개념 모두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2. 연구모형검증

본 연구에서 가설검증은 AMOS 7.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표 3〉 구성개념간의 상관분석

	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인터넷 중독	사이버일탈
긴장	1.00			
낮은 자기통제력	.392***	1.00		
인터넷 중독	.359***	.313***	1.00	
사이버일탈	.263***	.294***	.272***	1.00
AVE	.502	.539	.632	.556

모형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검증결과와 모형의 적합도는 〈표 4〉와 같다.

첫째, 긴장과 사이버일탈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1〉의 검정결과는 긴장상태가 커질수록 사이버일탈의 점수 또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은 채택되었다. 둘째, 긴장상태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가설2〉의 검정결과 역시 긴장상태가 커질수록 인터넷중독 점수 또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는 채택되었다. 셋째,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이버일탈의 관계에 대한 〈가설3〉은 낮은 자기통제력 점수가 커질수록 사이버일탈점수 또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 또한 채택되었다. 넷째, 낮은 자기통제력과 인터넷중독에 대한 〈가설4〉의 검정결과 낮은 자기통제력의 점수가 커질수록 인터넷 중독 점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4〉역시 채택되었다. 다섯째,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일탈의 관계에 대한 〈가설5〉의 검정 결과 인터넷 중독의 점수가 커질수록 사이버일탈 점수 또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5〉 역시 채택되었다. 결국 제안된 연구모형의 이론변수들 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chi^2(39) = 237.557, GFI = .953, AGFI = .891, CFI = .889, RMR = .067$ ) 또한 일반적인 수준에서 만족할 만한 것

〈표 4〉 연구모형 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채택여부
가설1	긴장 → 사이버일탈	.078	.036	2.189*	채택
가설2	긴장 → 인터넷중독	.631	.095	6.624***	채택
가설3	낮은 자기통제력 → 사이버일탈	.066	.026	2.595**	채택
가설4	낮은 자기 통제력 → 인터넷중독	.263	.067	3.946***	채택
가설5	인터넷중독 → 사이버일탈	.068	.025	2.686**	채택

$\chi^2(39) = 237.557, GFI = .953, AGFI = .891, CFI = .889, RMR = .067$

〈표 5〉 최종모형 경로계수의 효과분해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긴장 → 사이버일탈	.078	.043	.121
긴장 → 인터넷중독	.631	-	.631
낮은 자기통제력 → 사이버일탈	.066	.018	.084
낮은 자기 통제력 → 인터넷중독	.263	-	.263
인터넷중독 → 사이버일탈	.068	-	.068

으로 나타나 제안된 연구모형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인터넷중독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경로계수의 효과 분해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긴장은 사이버일탈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존재하였다. 긴장이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총효과는 .121이었고, 이중 직접효과가 .078, 간접효과가 .043으로 직접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낮은 자기통제력 또한 사이버일탈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존재하였다. 낮은 자기 통제력이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총효과는 .084이였으며 이중 직접효과가 .066, 간접효과가 .018로 나타나 직접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설6〉, 〈가설7〉, 〈가설8〉의 익명성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집단의 경로계수를 free로 둔 free 모형과 두 집단의 경로계수가 동일하다는 간주한 제약모형간의  $\chi^2$ 의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검증결과  $\Delta\chi^2(5) = 15.794, p < 0.001$ 로 두 집단 간의 추정경로계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익명성의 조절효과는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경로계수별로, 익명성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가설6〉의 검증결과 긴장이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영향은 익명성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의 경로계수가 .256, 익명성을 낮게 인식한 집단의 경로계수는

-.007로 나타났으며, 이 두 집단의 경로계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6〉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가설7〉과 〈가설8〉의 검증결과 낮은 자기통제력이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영향력과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우 두 집단 간의 경로계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가설7〉과 〈가설8〉은 기각되었다. 낮은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중독의 경우 익명성에 의해 조절되지 않았는데 낮은 자기통제력의 경우 익명성을 높게 인식한 집단과 낮게 인식한 집단 모두 사이버일탈에 대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의 경우 익명성을 높게 인식한 집단의 사이버일탈에 대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이들 두 집단 간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사이버일탈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일탈관련 이론 중 그 타당성을 인정받은 긴장이론과 일반이론을 사이버일탈에 적용해 봄과 동시에 사이버공간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와 익명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연구결과, 기존 일탈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요인인 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은 사이버일탈에서도 그 설명력이 검증되었으며, 긴장과 낮은 자기 통제력 이외에도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또한 익명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사이버일탈에 영향을 주는 경로 중 긴장 → 사이버일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익명성의 조절효과도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표 6〉 익명성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가설	경로	익명성 인식 정도 높음			익명성 인식 정도 낮음			$\Delta\chi^2$	채택여부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가설6	긴장→사이버일탈	.256	.104	2.466***	-.007	.015	-.132	7.519***	채택
가설7	낮은 자기통제력→사이버일탈	.071	.049	1.434	.027	.017	1.540	.178	기각
가설8	인터넷중독→사이버일탈	.035	.029	1.181	.410	.114	3.612***	.664	기각



기존의 사이버일탈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사이버일탈과 실제일탈의 차이를 크게 인지하지 않은 채 기존일탈에 적용되어 왔던 변인의 영향력을 사이버일탈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었다(이성식, 2005; 정기원, 권량희, 2006; 전동일, 위수경, 최중복, 오봉옥, 2008;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a, b).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일탈과 사이버일탈은 그 발생 측면에서 다른 양상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중독과 익명성의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사이버일탈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기존의 일탈방지 프로그램과는 반드시 차별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사이버 일탈은 기존 일탈과는 다르게 중독성과 익명성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일탈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독성과 익명성을 포함한 사이버공간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이버일탈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중독만으로도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기도 하지만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일탈과의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인터넷 중독 예방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어야 한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에는 많은 의문점이 제기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모색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익명성이 사이버일탈과 관련 있음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사이버일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인터넷의 파급성과 광범위한 영향력에 비추어 본다면 익명성 상황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익명성 문제를 실명제의 전환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좀 더 폭넓게 사이버상에서 네티즌이 지켜야하는 윤리적인 강령과 같은 가치관 전환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바람직해 보인다.

본 연구는 사이버일탈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기존의 일탈관련 이론과 더불어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중독성과 익명성의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중독과 익명성에 한정하여 접근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충분

히 고려하여 각 요인들의 특성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또한 필요해 보인다.

■ 참고문헌

김경신, 김진희(2003).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관계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6(1), 15-26.

김교현(2001).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실태와 컴퓨터 중독**. 충남: 충남대학교대학생활연구소.

김두섭, 민수홍(1996). **개인의 자기 통제력이 범의역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옥순(2000). 정보사회와 청소년 자아정체성, 청소년개발원 주최세미나 발표논문집. **인터넷 문화: 청소년참여와 사이버일탈**, 26-57.

김유정(2002).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척도개발 및 심리사회적 취약성 요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휘, 김지호(2002). 인터넷 일탈행동 및 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3(2), 91-110.

김정화(2002). 가족의사소통 및 가족기능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원, 조옥귀(2002). 중,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 사회환경적 요인 및 인터넷게임 중독과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2(2), 1-15.

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곽대경, 이동원, 박철현(2003). **청소년비행론**. 서울: 청록출판사.

김지환(2005). 폭력적 PC 게임의 경험과 공격적 특성이 공격행동과 공격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4), 45-66.

김혜원(2001). 청소년 인터넷 중독현상: 인터넷 중독의 현황 파악과 관련변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0(3), 133-153.

남현주(2003).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역기능적인 가족구조와 의사소통 관계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호, 김미경(2002).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중독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3(1), 335-339.

배진한(1995). 컴퓨터 매개커뮤니케이션이 대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정보이용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부정민, 조유진(2010). 청소년 온라인게임 몰입의 중독화에 대한 중재변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17(1), 85-118.

- 서화신(2004). 부모양육태도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윤숙(2004).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과 사이버 일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35-57.
- 송원영(1998). 자기효능감과 자시 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준섭, 이충환(2010).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자기통제력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 분석. **청소년학연구**, 17(8), 105-128.
- 안석(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서울소재중학생으로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돈규(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에 따른 대인관계 활동 및 만족도 차이. **청소년학연구**, 10(3), 481-500.
- 오영희(2007). 청소년 사이버문화와 학습태도, 대인관계 및 소비행동과의 관계연구. **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문화포럼**, 16, 80-114.
- 이선경(2001).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현황과 우울 및 자기통제력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식(2004). 청소년 사이버일탈의 설명요인에 관한 일 연구. **형사정책연구**, 15(1), 121-154.
- 이성식(2005).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 청소년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 기준요인과의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6(1), 77-108.
- 이수진(2008).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문제행동 성향과의 관계: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으로 이용한 성별 간 다집단 분석. **청소년학연구**, 15(3), 237-257.
- 이종원(2001). **청소년의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 실태 분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혜경(2002).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의 폭력게임 중독을 예측하는 사회심리적 변인.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4), 55-79.
- 이호열, 김준희(2008). 청소년 사이버일탈행동에 대한 여가교육의 방향 모색.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2), 177-191.
- 장미경, 이은경, 장재홍, 이재영, 김은영, 이문희(2004). 게임 장르에 따른 게임중독, 인터넷사용욕구 및 심리사회변인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05-722.
- 전동일, 위수경, 최중복, 오봉욱(2008). 청소년 사이버 비행 영향 요인. **사회복지리뷰**, 13집, 149-170.
- 정기원, 권량희(2006). 부모 및 교사 애착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일반긴장이론의 실증분석. **청소년학연구**, 15(5-2), 81-102.
- 정태근(2005).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자기 통제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13(1), 143-163.
- 주리에, 권석만(2001). 인터넷을 매개로 나타나는 문제 행동과 유형분석. **심리과학**, 10(1), 93-115.
- 주지혁, 조영기(2007). 온라인 게임이 청소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리니지 이용자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4(4), 79-115.
- 천정웅(2000). 청소년 사이버일탈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7(2), 97-116.
- 최희재, 이준기, 김정원(2009).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기술적, 사회적 익명성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 정보학회지**, 10(1), 63-74.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2007a). 고등학생의 사이버일탈과 인간관계, 심리특성 및 행동특성의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14(4), 233-258.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2007b). 대학생의 사이버일탈행동: 인간관계, 도덕적일탈, 성격 및 일반적인 일탈행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1(4), 799-826.
- Agnew, R., & Brezina, T.(1997). Relational problems with press, gender and delinquency, *Youth and Society*, 29, 84-111.
- Agnew, R., & White, H. R.(1992). An empirical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30, 475-499.
- Anderson, C. A., & Dill, K. E.(2000). Video games and aggressive thoughts, feelings, and behavior in the laboratory and in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4), 772-790.
- Arnkle, B. J., Grasmick, H. G., Tittle, C. R., & Bursik, R. J. Hr.(1993). Low Self-Control And Imprudent Behavior.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9, 225-247.
- Brezina, T.(1996). Adapting to Strain: an examination of delinquent coping responses, *Criminology*, 34, 39-60.
- Cohen, A. K.(1965). The Sociology Of The Deviant Act: Anomie Theory And Beyon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1), 5-14.
- Cohen, E. G., & Farrington, D. P.(1999). Changes In The Most-Cited Scholars In Twenty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Journal Of Between 1990 And 1995.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7, 345-359.
- Colwell, J., & Payne, J.(2000). Negative correlates of computer game play in adolescent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1, 295-310.

- Davenport, D.(2000), *The price of freedoms*, Presented at The Humanities at the Dawn of the 3rd millenium, a joint Binghampton NY & NETU conference, Nnkara.
- Evan, T. D., Cullen, F. T., Burton, V. S. J., Dunaway, R. G., & Benson, M. L.(1997). The Social Consequences Of Self-Control: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Criminology* 35. 475-502.
- Funk, J. B., Bushman, J., & German, G. N.(2000). Preference for violent electronic games, self-concept, and gender differences in young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70, 233-241.
- Gibbs, J. J., & Giever, D.(1995). Self-Control And Its Manifestations Among University Students: An Empirical Test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Justice Quarterly* 12. 231-155.
- Goldberg, I.(1996). Internet addition, electronic message to research discussion list.http://www.rider.edu/users/suler/psy cyber/support.
- Gottfredson, M. R., &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 G., Tittle, C. R., Bursik, R. J. Jr., & Arnekelv, B. J.(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 Of Gottfredson And Hirs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 Hur, M. H.(2006). Demographic, habitual, and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internet addition disorder. an empirical study of Korean teenagers, *Cyber Psychology & Behavior*, 9(5), 514-525.
- Kim, S., Murry, V., & Brody, G. H.(2001).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elf-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an application of second-order growth curve mode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 Paternoster, R., & Mazerolle, P.(1994). General strain theory and delinquency: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1, 235-263.
- Piquero, N. L., & Miriam D. S.(2004). Gender And General Strain Theory: A Preliminary Test Of Broody And Agnes's Gender/Gst Hypotheses. *Justice Quarterly* 21(1). 125-158.
- Polakwski, M.(1994). Linking Self-And Social Control With Deviance: Illumination The Structure Underlying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Its Relation To Deviant Activit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0, 41-78.
- Postmes, T., & Spears, R.(1998). Deindividuation and anti-normative behavior: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2, 238-259.
- Pratt, T. G., & Cullen, F. T.(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38. 931-964.
- Robert, A.(1985). A Revised Strain Theory Of Delinquency. *Social Force* 64(1). 151-167.
- Robert, A.(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7.
- Suler, M.(2003).The online disinhibition effect, The psychology of cyberspace.
- Tittle, C. R.(1980). *Sanction and social deviance: the question of deterrence*, New York: Praeger.
- Turner, J. H.(1982).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Third Edition. Homewood: The Dorsey Press.
- Vazonri, A. T., Wittekind, J. E., Belliston, L. M., & Loh, T. D.(2004). Extend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To The East: Low Self-Control In Japanese Late Adolescent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0, 189-215.
- Vazsonyi, A. T., Pickering, L. E., Junger, M., & Helsing, D.(2001). An Empirical Test Of A General Theory Of Crime: A Four Nation Comparative Study Of Self-Control And The Prediction Of Devia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 91-131.
- Willace, P. M.(2004) *The Psychology of the Internet*. 인터넷 심리학. 황상만(역), 서울: 에코 리브르. (2001 원저발간)
- Wood, P. B., Pfefferbaum, B., & Arnekelv, B. J.(1993). Risk-Taking And Self-Control: Social Psychological Correlation Of Delinquency.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16, 111-130.
- Young, K. S.(1996a). Internet can be as addicting as

alcohol, drug and gambling. An APT news release.

Young, K. S.(1996b).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oster presented at the 104th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vention, Toronto, Canada.

Zimbardo, P. G.(1969). *The human choice: individuation, reason, and order vs. deindividuation, impulse and*

*chaos*, in W. J. Arnold & D. Levin(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접 수 일 : 2010년 11월 24일

심사시작일 : 2010년 11월 24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2월 15일